

# 오피니언

## 데스크시각

박치경



최근 우리는 흔치않은 경험을 했다. 석 달 사이에 국상(國喪)을 두 번이나 치른 것이다.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모에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작별했다. 올 여름 유난히 비가 많았던 것은 아마도 두 사람과의 이별이 아쉬워서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평생을 민주주의와 민족화해, 세계평화에 힘쓴 DJ.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떠나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억하느라 국민은 큰 슬픔에 젖었다.

### 무거운 숙제가 된 메시지

두 사람과의 죽음을 비교하자면 아마 이런 차이일 게다. 노 전 대통령의 급서가 국민에게 '격정'을 불러일으켰다면, DJ의 서거는 차분한 '감동'을 주었다. 이렇듯 두 사람의 죽음이 가져온 감정적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에게 전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는 한결같았다.

먼저, 길을 떠난 노 전 대통령 유서가 관

통하고 있는 메아리는 웅서다. 짧은 그의 유서는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한마디로 축약된다. DJ는 공개적인 유서나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크나큰 '유훈'을 우리 가슴에 남겼다. 바로 후대를

## 또다시 'DJ'를 기다릴 순 없다

에게 화해와 통합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내주고 눈을 감은 것이다.

다행히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용케도 그의 정확한 유지(遺志)를 알아챘다. 그것은 바로 전라도와 경상도, 가난한 이와 부자, 분단돼 있는 남북, 진보와 보수가 보듬어 안아 그동안 허물을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라는 간절한 당부였다.

말없이 떠난 DJ의 유언이 '화해'와 '통합'이었다면, 가꾸로 그의 생존 시에는 '질서'와 '반목'이 접철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DJ가 '악마의 주술'이라며 몸서리쳤

던 지역감정은 정치인생 내내 그를 묶어왔다. 1971년 7대 대선에 출마했던 DJ는 갑작스럽게 불거진 지역감정의 탓에 분부를 삼켰다.

빈궁한 섬마을 출신으로 평생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해 골몰했기에 대부분의 부자는 항상 그를 경원했다. 남북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금기시했던 반공 이데올로기의 군사정권 시절 '무모하게'도 '민족화해를 부르짖었던 그는 '빨갱이'로 몰렸다.

DJ를 '트러플 메이커'로 치부하며 눈총

### 확실한 방법은 '시민행동'

DJ 서거 후 당장 아권에서는 대통합론이 꿈틀거렸지만 벌써 수도권 다툼이 일조잡이다. 40년 가깝도록 광주·전남지역의 정치적 지주역할을 했던 DJ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리더십도 가물가물 하다.

이 같은 냉엄한 현실을 감안하면 DJ나 노 전 대통령이 눈을 감으며 간곡하게 당부했던 화해와 통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서는 게 훨씬 빨라 보인다. 광주·전남의 지역문제 역시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DJ와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이제는 행동에 옮길 때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활발하고 건전한 시민운동을 통해 문제해결의 주역으로 나서야 가장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심으로 보여주면 된다.

시민들이 앞장서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다. 또다시 'DJ'나 '노무현'을 만나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과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순진한 발상이다. 정치권이 제 아무리 두 사람의 유훈을 받들겠다고 다짐했음장정, 정파나 지지세력의 이해를 좇다 보면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시설

### 실효성 있는 쌀 소비 진작 방안 서둘러야

본격적인 벼 수확철을 앞두고 '쌀 소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쌀 재고량이 수 십만에 달한 상황에서 벼 수확이 본격화될 경우 쌀값 폭락은 물론 보관 매를 새로운 리더십도 가물가물 하다.

이 같은 냉엄한 현실을 감안하면 DJ나 노 전 대통령이 눈을 감으며 간곡하게 당부했던 화해와 통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서는 게 훨씬 빨라 보인다. 광주·전남의 지역문제 역시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DJ와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이제는 행동에 옮길 때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활발하고 건전한 시민운동을 통해 문제해결의 주역으로 나서야 가장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심으로 보여주면 된다.

시민들이 앞장서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다. 또다시 'DJ'나 '노무현'을 만나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과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채 쌀 한 가마도 못 먹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쏟아질 경우 투매에 따른 가격폭락이 불가피하다.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국내 쌀 농사의 기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쌀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가공용 쌀 가격을 일시적으로 30% 내리 공급하는 것이다. 원료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관련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쌀 재고의 급증은 지난해 벼 생산량이 10%가량 늘었고, 매년 40만~50만에 달했던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된데다 올해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의 의무수입량이 30만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도 한 요인이다. 1인당 연평균 밥쌀 소비량은 1995년 106.5kg에서 작년 75.8kg까지 줄었다. 성인 한 사람이 1년에

### 교수·전공의 '부적절 관행' 개선 시급하다

전남대병원 교수가 성매매와 회식 비용을 전공의들에게 대신 내도록 강요해 대에 대해 지역민들은 차라리 사일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 전남대병원이 신속하게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물의를 일으킨 교수에 대해 병원 경직을 해제해달라고 전남대 총장에게 요청키로 결한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다. 병원 측은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수수입지라도 부적절한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전공의 신분 자체가 의료인으로서 동시에 '교육자'이기 때문이다. 수련기간동안 선배 의사로부터 수술 기술이나 진료 테크닉을 전수받는 '도제식 교육'이 많은 것도 한 원인이다.

이제 우리 의료계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의학회와 병원협회에 권고한 종합병원 내 '폭력 방지 위원회'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이 충격적이다. 광주·전남의 대표 의료기관에서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지역민들은 차라리 사일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 전남대병원이 신속하게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물의를 일으킨 교수에 대해 병원 경직을 해제해달라고 전남대 총장에게 요청키로 결한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다. 병원 측은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수수입지라도 부적절한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전공의 신분 자체가 의료인으로서 동시에 '교육자'이기 때문이다. 수련기간동안 선배 의사로부터 수술 기술이나 진료 테크닉을 전수받는 '도제식 교육'이 많은 것도 한 원인이다.

이제 우리 의료계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의학회와 병원협회에 권고한 종합병원 내 '폭력 방지 위원회'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특/별/기/고

김종오



며칠 전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차 한 잔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 한담 중에 평소 애하고 지내던 시의원 한 분이 요즘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 왔다. 아시아 문화전당의 설계안에서 구 도청 별관의 처리 문제이다.

철거를 할 것인가? 원형을 보존할 것인가? 5월의 문을 세우 절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를 공모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대해 시민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러나 다수결 원칙이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다수결로 결정을 하여도 소수의 갈등은 여전히 남게 된다.

"현장이나 건물은 아닌 5월 정신을 계승하여 미래적 가치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당시의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인 현장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귀감을 삼아야 한다", 양측의 주장이 다 옳고 설득력이 있다. 누가, 왜, 어느 쪽이 잘못했다 할

것인가? 잘못된 것은 선택을 하게 만든 애초의 상황설정에 있다.

상황이 어떻게 설정된 것인지 알아보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분명히 그것은 정치적 배려로 선물이었다. 참여정부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일종의 도시 재개발 사업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니까 가장 큰 안타까움이 있다. 왜 백지수표를 받고 광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산업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광주는 재정 자립도 면에서 전국 7대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다. 자가 상승률도 꼴찌이다. 서울의 아파트값의 11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 지역 젊은이들에게 그럴 듯한 기업의 일자리는 꿈에서나 가능하다.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지역경제가 발전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유감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이 지역의 대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기업다운 기업이 많아져야 이 지역경제의 약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도시미관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니었다. 문화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외국의 문화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아시아 '문화산업'의 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했다.

문화수도라는 실속없는 화려한 걸치레보다 는 생산성 있는 문화산업의 메카 광

주를 선택했어야 했다.

우리가 철거나, 보존이나 둘로 나뉘어 갈등하는 동안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화성시의 130여만 평에 일본 유니버설의 6배 규모로 테마파크를 짓고 있다. 파라마운트와 MGM은 영종도와 송도 신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고 20세기 폭스는 부산을 노크하고 있다.

바로 전임 시장시절 유니버설의 실무진이 광주를 방문해 투자의향을 밝혔으나 거부당하고 못내 아쉬워 며칠을 머물다 갔다 한다.

리더들의 글로벌 마인드와 산업에 대한 안목이 절실하다. 더 이상 우물 안의 광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백지수표를 받고 손해가 날 수 있다. 아직 이미 상당한 손실이 생겼다. 내부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도시 브랜드 가치의 손실은 돈으로 환산이 어렵다.

우여곡절을 거치더라도 분명 거대하고 아름다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에 들어설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단추를 잘 끼워 나가야 한다.

(조선대 초빙교수, 전 SK글로벌 실무)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은펜칼럼

김래원



얼마 전 젊은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궁리하다 가까운 담양의 대나무골 테마공원이란 데를 다녀왔다. 대체로 휴가라고 하면 바닷가, 계곡, 혹은 어디 쫓나는데를 잠시차 차를 몰아 다녀오는 것을 우선 떠올리곤 하는데, 필자의 이번 휴가는 이에 비하면 간단한 주말 나들이와 별 다를 없으니 다소 겸연쩍다.

그러나 늘 도시의 매연과 반복되는 일상에 끌려다니다 간만에 만난

50일 이내에 다 자라버린다고 한다. 50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며 두께 위치지도 않고 점점 단단해지지만 한다. 그리고 그중 왕대는 80년에 한 번씩 흰꽃을 피운다고 한다. 또 한 번 꽃을 피운 왕대는 곧 죽어버린다고 한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태어나 세월을 거치며 무수히 달라지는 사람의 삶처럼 대나무의 일생은 우리들의 모습을 닮아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를 생각하는

만들고 연장도 만들었다. 대나무는 약기도 되고 무기도 된다. 자신의 몸에 구멍을 뚫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드는 약기의 솜씨가 되기도 하고, 날카롭게 잘린 끝으로 죽창이 되어 누군가의 삶을 앗아가는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대나무는 특이하게도 죽순이 나오면

의미가 되는 삶 또한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세월이 흐를수록 단단해지는 대나무처럼 자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지금의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대나무숲을 거닐며 영화배우가 된 것처럼 사진기 셔터만 눌러낼 게 아니라 스스로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보는 일이다.

(문화평론가)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자를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 韓 자살률 OECD국 중 최고 정부차원 대책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지경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자살률 또한 OECD국가 중 최고로 높다.

생활고나 부부관계 등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자주 나온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 너무 겁나고 안타깝고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자살을 이토록 방조하는 것은 복지국가로서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는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자살에 방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는걸 아는지 모르겠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살 시도 환자들이 응급 처치만 받고 그냥 나가지만 외국에서는 반드시 자살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 정신과적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들이 사회적 편견 없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자살로 사망한 숫자의 10~25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 말은 앞으로 언제든지 자살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이기도 한다.

이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의료기관과 가정, 학교,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병국민적 차원의 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김기영·광주시 북구 안암동

## 無 等 鼓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닌 커피(Coffee)의 어원은 아랍어인 카파(caffa)로서 힘을 뜻한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커피나무가 야생하는 곳을 가리키기도 한다. 유럽에서는 처음에 '아라비아의 와인'이라고 하다가, 1650년 무렵부터 커피라고 불렀다.

어원과는 달리 커피는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기호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과민증·신경질·불안감·두통·불면증 등을 일으킨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경우 고혈압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루 5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남성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이 3배나 높다.

물론 커피가 유해한 것만은 아니다. 아직 연구가 계속되고 있긴 하나 임팩트 새를 예방한다든지 숙취해소, 암 예방 효과, 다이어트 등에 일정부분 도움을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해악이 격정되면 마시지 않으면 그만이고, 유전

적으로 카페인 분해효소가 적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 적당량을 조절해 마시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 마시는 커피량은 얼마나 될까.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놀랍게도 지난해 커피 수입량은 무려 11만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3억3천만달러를 넘는다. 이는 커피 108억 잔 분량으로, 성인 한 사람이 연간 288잔의 커피를 마셨다는 계산이 나온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아관파천으로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원두커피를 마신 게 효시라면 불과 110여년 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매일 한 잔씩의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굳이 저마다의 기호를 탓할 자작이나 까닭은 없다. 그러나 구수한 송농도 그 만이려니와 녹차를 비롯해 옥수수차·구기자차 등 각종 전통차나 수두특한데 기여를 들어 수입한 커피만 출창 마셔대는 마니아들의 고집은 뭘까.

/이종태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 커피(Coffe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정예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조사부 2200-571	
(F A 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